

# 이웃 구조 앞장 김래준·김보건씨 '의로운 시민상'

### 간간서 추락 위험 여성 구조 화마 휩쓸린 노숙인 구조

김래준(46)씨와 김보건(30)씨가 최근 광주시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 광주시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김래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2시 41분께 차를 몰고 광산구 운남동 아등대교를 지나던 중, 20대 여성이 다리간에서 걸터앉아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여성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걸 직감하고 구조에 나섰다.

그는 여성이 놀라지 않도록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온 힘을 다해 여성을 붙잡고, 다른 시민들이 합류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도 여성을 위로하고 안심시켰다.

김보건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새벽 3시 3분께 남구 주월동 도로변에서 옷에 불이 옮겨 붙은 노숙인을



광주시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김보건(왼쪽), 김래준씨.

발견했다. 추운 날씨에 불을 지피려다 화를 당한 것이었다. 그는 차에 있던 담요 등을 가져와 화재를 진압했다.

손에 화상을 입고 옷이 불에 그슬리는 중에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주변 건물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막는 데 힘을 쏟았다.

김보건씨는 "위기에 처한 상황을 목격하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이렇게 의로운 시민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광주시민 모두가 서로 돕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의(義)는 광주정신의 본질이자 광주다운 삶의 참모습으로, 김래준, 김보건씨의 의로운 행동은 광주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광주의 빛이 됐다"며 "광주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의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수해민에 농산물 나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양진식·왼쪽 세번째)는 지난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 섬진강 수해로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구례·곡성·남원 주민 64가구에 지역 농산물을 전달했다.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제공>

## 광주대 간호학과 졸업생들, 모교에 발전기금 전달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왼쪽에서 세번째) 간호학과 2021년 졸업생 46명이 모교 발전과 후배양성을 위해 십시일반 발전기금을 모금해 전달했다.

<광주대 제공>

##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취약계층 돕기 성금 기탁



광주과학기술진흥원(원장 안기석)은 최근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노숙인돌봄사업단(회장 이봉문·오한보스코 신부)을 방문해 사회 취약계층 사랑나눔 실천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제공>

# '사운드 오브 뮤직' 트랩 대령 役 배우 크리스토퍼 플러머 별세

### 평생 100여편 영화 출연...82세 최고령 오스카 수상 기록도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연 배우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9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플러머는 5일(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의 자택에서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플러머는 1965년 개봉한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영국 출신의 명배우 줄리 앤드루스와 함께 주연으로 출연해 한국의 영화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 할리우드 원로 배우다.

플러머는 특히 이 영화에서 감미롭고 서정적인 멜로디의 '에델바이스'를 기타를 치면서 중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소화해 감재를 받았다.

AP통신은 "플러머는 50년 넘게 영화계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역할을 했지만, 그를 스타로 만든 것은 트랩 대령 역할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2007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랩 대령 役에) 유머를 넣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며 "트랩 대령을 비현실적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던 과정은 고통스러웠다"고 회고했다.

플러머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났다. 그의 외증조부는 존 애벗 캐나다 전 총리다.

평생 1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던 플러머는 '비기너스' (2010)에서 아내와 사별한 뒤 뒤늦게 동성애자임을 고백하는 아버지 역할을 맡아 2012년 84회 아카데미상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당시 82세의 나이로 오스카 트로피를 움켜쥐은 그는 최고령 아카데미 수상자로 기록됐다.

그는 또 세익스피어 연극에도 다수 출연해 토니상을 두 차례 받았고 TV 드라마 연기로 에미상도 2번 수상하는 등 일생에 걸쳐 개성 있는 연기로 문화계 다양한



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는 1962년 영연방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수여하는 캐나다 최고시민 훈장을 받았고, 1986년 미국 무대예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55 나만의 살던 고향은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양코르 카이로스	10 SBS 뉴스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 55 UHD 습터	00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시크릿 주주 별의여신 50 뽀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kbc특별대담 유승민 전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나만의 살던 고향은(재) 55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특집 2시 뉴스 외전	45 내고향 전파 스페셜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 사회, 문화 분야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시사간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다큐멘터리 3일(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캠핑 인 코리아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면이야기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시사타지! 따따부따(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비밀의 남자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	2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0 더 라이브	40 개는 훌륭하다	50 올니버스 드라마 러브선버너#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2]	10 다큐 인사이트(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통합뉴스룸 ET	45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00 나이트 라인 35 2021 희망봉차 함께, 나눔

##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티시태시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07:15 출동! 슈퍼펍	12:25 지식채널e	19:00 위 배어 베어스 : 곰 브라더스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30 클래식 e	19:30 자이언트 팽TV
07:45 꼬마하어로 슈퍼팩	13:00 EBS 다큐프라임	19: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8:00 당동명 유치원	13:55 다문화 고부 열전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08:30 두다다쿵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실크 로드 따라 -카리코람 하이웨이, 파키스탄>
09:00 뽀뽀뽀 뽀로로	15:45 몬카트	21:30 한국기행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15 올리 앤 문	<인생은 아름다워 1부 그대라는 행복>
09:30 명탐정 피트	16:30 당동명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해오와 해오	22:45 바닷가 사람들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8일(음 12월 27일 丁亥) ☎ 010-9790-8237

<p><b>子</b></p> <p>36년생 당연히 잘 되리라고 믿었던 것이 여의치 않을 수다. 48년생 이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보인다. 60년생 실의이 없다 면 가끔씩 빨리 선회하는 것이 좋다. 72년생 평생시에 해오던 방법대로만 행한다면 손쉽게 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 84년생 어떠한 경우라도 예정대로 이행해야 한다. 96년생 내버려 두면 악화 일로로 걷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7, 57</p> <p><b>丑</b></p> <p>37년생 즉시 조치했을 때에 부작용을 줄인다. 49년생 오류를 찾아내서 잘 대처한다면 순행할 수 있겠다. 61년생 기색이 보이면 즉시 조치하자. 73년생 처음에는 부담스럽더라도 차차 적응하게 되리라. 85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97년생 낮추면 높아질 것이요, 비우면 받드시 채워지리라. 행운의 숫자 : 41, 69</p> <p><b>寅</b></p> <p>38년생 바르지 않다면 바로 잡아 두어야 한다. 50년생 불편한 문제들이 속출하는 대목이로다. 62년생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성으로써 도의를 다한다면 복받을 것이다. 74년생 금금해왔던 바를 명쾌하게 파악한다. 86년생 이미 주어진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98년생 태산처럼 마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5, 76</p> <p><b>卯</b></p> <p>39년생 무리한 진행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51년생 생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리라. 63년생 상황을 잘 살피 본 후에 행하자. 75년생 가시적인 상황만을 전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87년생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날이니 매사에 예의 주시하라. 99년생 독특한 양상으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행운의 숫자 : 31, 87</p> <p><b>辰</b></p> <p>40년생 반드시 실용성을 전제해야 하느니라. 52년생 합리성에 기초한 조치들이 필요한 때이다. 64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바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된다. 76년생 갈망이 생기면 근원적인 계기가 마련 될 것이니라. 88년생 지속적인 노력과 성실함이 절실한 경로에 놓여 있다. 00년생 겉으로는 즐거운 체 하겠지만 속마음은 불편하리라. 행운의 숫자 : 19, 51</p> <p><b>巳</b></p> <p>41년생 함께하면서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낫다. 53년생 다방면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느니라. 65년생 여러가지 행운이 보따리 채 울 수가 있도다. 77년생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89년생 건실한 기반 위에서만 융성하게 될 것이다. 01년생 인과응보의 원리가 제대로 부합하겠다. 행운의 숫자 : 42, 92</p>	<p><b>午</b></p> <p>42년생 마음에 다 차지 않더라도 무던하게 대하는 것이 현명하다. 54년생 기초가 튼튼해야 거대한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66년생 집착할수록 손해이니 빨리 포기함이 나을 것이다. 78년생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느니라. 90년생 제대로 호응 받게 되는 부딪힘이 있다. 02년생 점차 확대되어가는 길목으로 향한다. 행운의 숫자 : 39, 79</p> <p><b>未</b></p> <p>43년생 지나친 집착은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 55년생 일 부나마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67년생 무의식중에도 내색해버린다면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음을 알라. 79년생 교체되면서 원점으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91년생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안배를 해야겠다. 03년생 실속이 없다면 미련 갖지 말고 버려라. 행운의 숫자 : 35, 59</p> <p><b>申</b></p> <p>32년생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니라. 44년생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56년생 담벼락하고 말하는 셈이니 입만 아물 것이다. 68년생 기저부터 문제점이 보이니 세밀하게 관찰하고 점검해 나가야겠다. 80년생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상이다. 92년생 임시 위상이니 부담 없이 임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21, 50</p> <p><b>酉</b></p> <p>33년생 뜬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니라. 45년생 전면적인 실행을 요하니 추진력을 높여야 할 때다. 57년생 끝난 일이니 속히 미련을 버려라. 69년생 약한 지연되기는 하나 목적은 달성 되겠다. 81년생 집중적으로 분석해보아야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93년생 융처가 있을 것이니 똑똑히 봐 두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6, 64</p> <p><b>戌</b></p> <p>34년생 여러 사람과 얽혀서 복잡해지는 성국이다. 46년생 뚝은 고달프더라도 마음은 평안하다. 58년생 빈틈을 보인다면 어느 한 순간에 기교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70년생 중차대한 실황을 포착하게 되는 기회가 있다. 82년생 불합리하니 속히 개선하고 불 일이다. 94년생 정황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2, 72</p> <p><b>亥</b></p> <p>35년생 천하가 다 알다시피 두 말하면 잔소리다. 47년생 상식을 뛰어 넘는 기이한 현상이 보인다. 59년생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강력하게 조치하라. 71년생 기존 질서를 재편하는 파격적인 것이 낫다. 83년생 계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95년생 삼사일인 한다면 후환을 남기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44, 95</p>
--	---